

【서평】

반복게임과 엔드게임 사이에 갇힌 한반도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작과비평사, 2012)
- 장달중 · 이정철 · 임수호,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김준형(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를 축으로 한 동북아 구도는 3개의 국면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은 한반도에 대한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과 한국전쟁이다. 두 초강대국이 벌였던 패권대립은 한반도에 분단구조의 원형을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에게 갈등을 이전시켜 대리전을 치르게 만들었다. 한반도 내부의 분열과 이념대립도 없지 않았지만, 분단은 1차적으로 국제적 맥락의 산물이었다. 두 번째는 냉전대결구조의 한반도 내재화과정이다. 분단이 고착되면서 남북은 냉전적 대결을 증폭시켜왔다. 즉 미소대결구조의 긴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전쟁의 억지상태를 형성하였으며, 그 프레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두 독재정권이 정통성 경쟁을 벌였다. 이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물리력과 강제력이 집중된 국가의 힘이 내재화되고 절대화되었다.

세 번째 전환기는 냉전붕괴와 탈냉전체제의 도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일어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독일통일로 상징되는 탈냉전, 세계화, 민주화, 시장화, 통합, 그리고 평화의 힘들이 한반도에도

분단질서 극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탈냉전 체제는 냉전이 역설적으로 제공했던 안정 및 확실성과는 반대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확장시켜갔다. 특히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통해 냉전을 극복해갔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는 냉전잔재의 영향권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한도 한편으로는 두 차례 정상회담의 경우처럼 화해와 분단극복의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안보패러다임과 중미 갈등구조, 그리고 북핵위기들로 인해 분단질서는 지속되었다. 남북한 국내정치 역시 분단구조를 이용한 권력유지 또는 확장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3번째 국면인 탈냉전기의 한반도는 ‘탈냉전의 바다에 떠 있는 냉전의 섬’처럼 국제화와 내재화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저작은 각각 2번째 국면과 3번째 국면을 분석한다. 첫 번째 국면에 관한 것은 수정주의-전통주의 논쟁, 그리고 내인론-외인론 논쟁 등으로 대변되는 분단의 기원 연구들에 의해 많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국면들에 대해선 현상분석들은 많았지만, 기원문제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은 많지 않았다. 이는 아무래도 분단의 기원에 비해서 학문적 논란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또한 분단이나 전쟁과는 달리 1970년대의 데탕트나 1990년대의 탈냉전이 배태한 긍정의 효과도 작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저작은 이런 일반적 경향과는 반대로 이 시기들에 대해서 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분단의 기원이 이들 전환기에서 어떤 연속성 또는 어떤 비연속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미리 정한 인과론을 가지고 맞는 증거들을 선별적으로 연구한 많은 저작들에 비해, 열린 인식과 함께 방대한 1차 자료들을 분석했다.

역사학자 홍석률의 저작인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 관계와 한반도(이하 ‘분단의 히스테리’)』는 제2국면인 1970년대 데탕트

전후 기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데탕트는 긴장으로 치닫던 남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화해국면에 의해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강대국의 갈등을 남북한 갈등과 경쟁으로 내재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정치학자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가 공동으로 저술한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이하 ‘북미 대립’)은 제3국면인 탈냉전 도래 이후의 북미관계의 전개를 다룬다. 두 저작은 서로 다른 시기를 분석하지만,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한반도 분단 구조의 항구성과 견고함에 대해 고통스러운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분단의 히스토리’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에서 1999년 이후 공개되어 나오기 시작한 미국외교관련 공식문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구체적인 시기는 1968년 1·21사태부터 1976년 판문점 도끼살해사건까지를 다룬다. 저자는 약 8년의 기간 동안 위기에서 화해로, 그리고 또다시 위기상황으로 가는 남북관계의 전형적인 순환주기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이 기간을 분단의 공고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기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체제의 내부질서 전반과 국민들의 인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1970년대 전후에 일어난 위기상황과 끝이어 나타난 데탕트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홍석률이 기점으로 삼은 1968년은 한국전쟁의 휴전체제가 성립된 지 15년 만에 전환기적 중대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던 해였다. 1·21사태,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사건, 그리고 11월 울진·삼척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나는 등 종전 이래 최대의 위기였으며, 제2의 한국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소분쟁과 베트남전쟁 격화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의 전체구도가 불안정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공세는 소련이나 중국의 사주라기보다 독자행동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 저자

의 판단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들은 월남전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행동을 더욱 제약했으며, 북한은 이를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계기로 이용했던 것이다. 북한당국에 의해 억류된 푸에블로호의 처리를 놓고 북미직접협상이 시작되는데, 북한은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중심 세력인 미국이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안보를 담보하려 했던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핵문제를 놓고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북한에게 미국의 존재는 이중적인데, 한편으로는 자신을 말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고 생존을 보장받고 싶은 대상인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비대칭동맹이듯이 북한과 미국은 비대칭 적국관계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적대적 위기상황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대북협상이나 보상을 제공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위기상황을 만들어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북미관계의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분단의 히스테리’가 제시하는 두 번째 통찰이 여기에 있다. 즉,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와 관계정상화라는 일견 모순적인 행보가 북한체제의 내부논리로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를 설명한다. 1990년대 이후 20년간의 북핵위기에서도 북한은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시하는 방법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미관계가 당시에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음을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나 미국의 대응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근본 성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한다. 저자는 도입부에서 한반도 분단은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한 내부의 정치 등 다층적 역학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각 변수의 층위가 위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영역의 상호작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하나의 층위가 배타적으로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0년대 데탕트를 가져오고, 남북한 정부의 행동들을 제약했던 주요 독립변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해석한다. 일견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의 의도는 명확하다. 당시 미중의 긴장완화가 결론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남북한의 문제로 내재화하는 결정적인 변수였지만, 미중관계만으로 데탕트 이전과 이후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로 나가기 전에 이미 북한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넘어서 북한 체제를 공식인정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은 미중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데탕트라는 국제정치상황은 긴장해소의 국면임에도, 이를 남북한 정권들이 공히 동맹의 방기차원에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적극 이용했다는 점도 미중관계라는 독립변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1970년대 초 한반도에서는 군사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베트남 전쟁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되자, 미중은 극적인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분쟁을 비대칭 동맹국들에게 내재화시켰던 것이다. 소위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 및 ‘한반도 분단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the Korean Division)’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1960년대 말부터 이미 개입축소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분단이 또 다른 군사충돌이라는 파국으로 가지 않게 했으며, 또 일정부분 남북대화라는 관계개선을 이끌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질서의 안정화 내지는 고착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한반도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다른 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 관해서는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로 진행된 미중관계개선 국면을 남북한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해 이용했다. 일종의 ‘적대적 공존(저자의 표현으로는 적대적 공모)’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10월 유신체제라는 극우반공의 독재정치를 합리화하고, 북한은 남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 및 주체사상을 강화한다. 쉽게 전쟁으로 가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도 어려운 상태가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미 대립’은 구체적으로는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9·19공동성명의 성과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2000년대 중반까지를 분석했다. 3명의 공동저자들은 우선 오늘날 북미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나 저작들이 사실과 증거들에 기초한 결론보다는 자기충족적인 판단을 앞세우면서 경직된 인과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북한에 대해 너무 적은 증거만 가지고 너무 많은 해석을 도출해왔다는 것이다. 우연의 반복에 의한 결과라는 식의 결론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북미 대립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앞세워 북핵위기를 역추적하며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직된 인과론은 더 심각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서는 북미 사이에 오고간 담론과 선언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의 논쟁과 합의 등 방대한 양의 1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의 저작 ‘분단의 히스테리’가 해제된 미국의 비밀외교문서를 분석한 반면, ‘북미 대립’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고간 ‘공개된 말과 행동’의 상호공방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 미디어 속에 나타난 북한의 언술들을 추적하고 샘플링해서 이를 기초로 북한행동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했다.

‘북미 대립’이 전반부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탈냉전의 도래가 북미 간 냉전대립구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지만 무산되고, 왜 탈냉전 시기에도

대립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냐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합의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우선 냉전붕괴가 북미대결구조 해소의 계기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냉전질서의 확실성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반대로 불확실성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탈냉전의 이중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많을 것이다. 아무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불안과 탈냉전의 역설적 불안정성이 북한에게는 생존위기로 간주되었다.

앞의 저자인 ‘분단의 히스테리’와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이는 1970년대 이후 내재화된 분단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색이 짙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유일 패권으로 등장한 미국적 질서의 전지구화를 의미한다. 이를 두고 ‘북미 대립’의 저자들은 북한의 ‘지속 담론’과 미국의 ‘변화 담론’의 충돌로 규정한다. 물론 제네바합의로 대표되는 1990년대는 냉전 시기의 대립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2001년의 9·11테러사건과 네오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미관계는 현실주의에 기초한 주고받는 교환(trade-off)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한쪽이 무너져야 결판이 나는 소위 엔드게임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8년의 강경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기에, 역설적으로 엔드게임은 ‘끝나지 않고’ 협상타결과 합의파기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간 셈이 되었다.

두 번째 문제제기인 북미합의가 왜 지켜지지 못하고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의 숨겨진 의도와 함께 서로 다른 시간표(time table)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테러 등과 함께 미국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선택은 미국의 몫이었다. 포용하여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봉쇄 및 압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든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관적

으로 결정되었다. 1993~1994년 전쟁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위기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한 것이 제네바합의였으나,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시간을 끌면 쇠약해져 다른 사회주의 체제들처럼 붕괴할 것으로 믿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개발을 축적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인식했다. 제네바합의와 9·19공동성명을 포함해 그동안의 여러 합의사항들은 북한에게 있어 핵협상을 통해 북미관계개선을 이루려는 의도와 핵무기의 실제보유를 통해 대외위협을 억지하려는 의도 사이의 양다리 같은 것이었다. 원하는 만큼 얻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면 핵개발을 재개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북미협상을 북한은 핵억지력 향상의 시간벌기로, 미국은 북한체제 붕괴의 시간벌기로 인식하는 차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핵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파국적 상황만 회피할 뿐 어느 쪽도 해결을 위한 진정성은 없는 긴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미는 비대칭 적대관계다. ‘분단의 히스테리’가 한미 간 비대칭동맹관계가 분단의 지속을 가져온 중요한 변수라고 지칭한 것처럼, ‘북미 대립’은 북미 간 비대칭 적대관계가 북미 대립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분단의 히스테리’가 분단의 공고화로 인한 군사충돌과 지속가능한 평화 사이의 변동을 지적하듯이, ‘북미 대립’은 북미의 서로 다른 의도와 타임테이블로 인해 협상타결과 협상파기(또는 교착) 사이의 변동주기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결과에 관해서는 결코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북미 대립’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과 북미관계개선에 있어 주요 이슈와 쟁점사항들을 분석한다. 우선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기를 4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는 제네

바합의를 전후해서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조건부 체제인정의 대가로 비확산을 얻어내는 시기였으며, 두 번째는 미국이 소위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포용정책에 나선 시기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시행정부 전 반부 6년간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선택폐기와 정권교체를 거론하는 매파적 무시정책의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젤리코(Phillip Zelikow) 구상’이 시도된 기간인데, 부시행정부 임기 말에 북한의 체제존속은 인정하되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사항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에 있어 비핵화 과정과의 선후문제, 당사자주의,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과 한미동맹의 충돌 문제, 그리고 비핵화의 정도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인식 차이를 이론과 현상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들도 이런 인식의 차이가 앞으로 상황이 진전될 경우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두 저작, ‘분단의 히스테리’와 ‘북미 대립’의 주요 논점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반도 분단역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를 분석했지만, 여러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고, 두 시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듯이 두 저작 역시 마치 하나의 시리즈처럼 연결되어 있다. 분단체제 60년, 그 견고성의 원인을 추적하고, 분단질서의 극복 없이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에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또한 ‘분단의 히스테리’는 한반도 내외의 역학을 지적하면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북미 대립’은 대타결도 충돌도 아닌 짜증스런 북미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두 저작은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으나,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자는 이를 변덕스럽고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관련주체들을 히스테리컬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후자는 갈등과 협력 사이의 힘든 줄타기를 계속하다가는 현상타파의 임

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 두 저작의 미래전망은 우려와 비관이 지배적이다. ‘분단의 히스테리’는 한반도에 두 분단국이 존재하는 한 분단 체제의 변덕스러운 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특히 강대국의 갈등이 교묘하게 남북에게 이전되고, 증폭되며, 갈등의 해결을 서로 미루는 무책임성과 식민성을 내부권력들이 조장하는 형태가 바뀌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북미 대립’ 역시 북한과 미국의 대립구조가 탈냉전에 와서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마지막 국면을 향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관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현 휴전체제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결론은 두 저작이 일치한다. 분단의 현상유지는 언제나 충돌과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의 통합과 분리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북미 대립’보다는 ‘분단의 히스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남북통합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당위론과 역사의 의외성에 기대면서 역사는 나선형으로 진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한다. 어떤 면에서 분석내용과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여지도 없지 않다. 또한 연역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증거들을 선별하는 연구들보다 방대한 1차 자료들을 귀납법적으로 연구하여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더 무겁고 객관적으로 다가온다. 두 연구 모두 사료의 생생함과 사실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사료의 희귀성이나 단절된 에피소드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던지는 역사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은 연구를 통한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민과 희망사항이 담긴 고통스런 사족(蛇足)이라는 느낌이 든다. 특히 홍석률의 경우 머리말에서 직접 밝힌 다음의 집필 취지와도 연결된다. “내외적 차원이

상응하여 한반도에 조성된 독특한 역학관계를 차분하고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여러 차원에서 변덕스럽게 휘방하는 분단 체제를 제어해가며, 그 극복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상태의 한반도가 ‘환갑’이 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주변 4강은 물론이고, 남북한의 집권세력들 까지도 분단질서로 말미암아 받는 이득이, 통일의 이득보다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주변국은 통일한국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남북의 집권세력은 비용을 포함한 통일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은 탓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단은 오랜 세월 견고하게 작동 해온 질서를 내버려두는 현상유지이고, 통일이나 평화는 현상타파라는 변화과정을 새롭게 통과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상의 변동은 시간의 축적에 비례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저자들과 공감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까지의 자각증상은 크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희망일 것이다. 다만 그 변화가 경착륙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준형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대표저서 및 논문으로는 『미국이 세계최강이 아니라면』, “G2관계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등이 있다.